
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원장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 ·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913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목 차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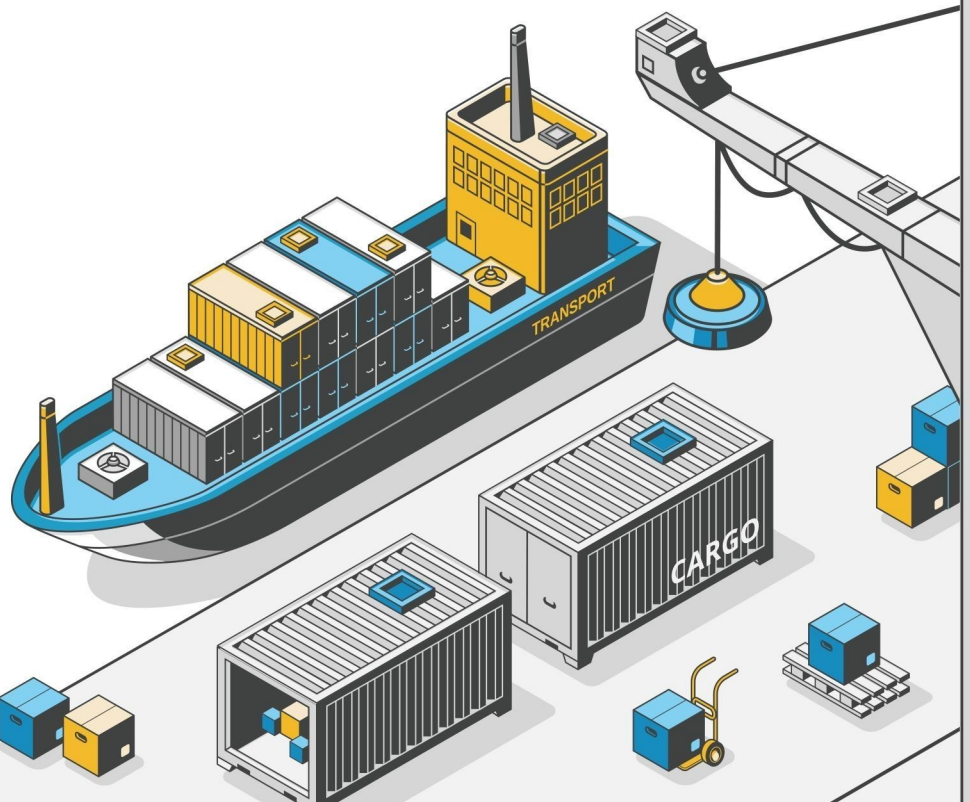
- 라농항 복합운송 프로젝트 시범운영 시작...
태국 랜드 브릿지 현실화 신호탄

▶ 공지사항

- 「국제물류 정보포탈」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▶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- 美 항만업계, UP-NS 합병에 독과점 우려
표명...육상교통위에 신중 검토 촉구



라농항 복합운송 프로젝트 시범운영 시작... 태국 랜드 브릿지 현실화 신호탄

- ▶ 태국 라농항의 복합운송 프로젝트가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되면서, 랜드 브릿지 사업이 실증 단계에 본격 진입할 전망
 - '25년 11월 태국항만청은 라농항(Ranong Port) 복합운송 프로젝트 첫 시범운영을 개시하며 도로·철도·해상을 연계한 복합운송 모델 적용을 본격화함
 - 해당 프로젝트는 1개의 주요 육로-해상 통합 루트와 4개의 BIMSTEC 해상 확장 루트 등 5개의 주요 국제 경제 루트를 연결하며, 라농항을 중앙 허브로 활용함
 - 첫 화물은 미얀마 양곤으로 운송되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운송 과정에서 모드 간 전환 안정성과 운영 적합성을 검증함
 - 특히 이번 시범운영은 태국 정부가 라농항을 랜드 브릿지의 공식 샌드박스 구간으로 지정한 이후 최초로 가동된 실증 운영으로 사업 현실화의 이정표가 될 예정임
 - 실제로 라농항은 '26년 착공 예정인 촌폰-라농 랜드 브릿지 축의 서측 거점으로서, '30년 완공 시 적용될 운영 표준과 절차를 사전에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
 - 또한 태국 정부는 '25년부터 크레인 현대화, 컨테이너 야드 확장, 디지털 통관·물류 플랫폼 시범 적용 등 라농항 중심의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병행해 시행 중임
 - 이는 랜드 브릿지 착공 전 '25~'26년 전환기 동안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, 초기 시범운영 단계에서 작업 처리 속도와 연계 효율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
 - 이러한 시범운영 성과는 향후 대규모 개발 계획 전반에 반영될 실무 기준과 운영 매뉴얼로 확장될 것으로 보임

라농항 복합운송 프로젝트 시범운영 추진



자료: <https://www.nationthailand.com>, <https://infra.economicstimes> (검색일: 2025.12.1.)

- ▶ 시범운영을 통해 5개 국제 루트가 본격 가동함에 따라 화물 운송시간 단축, 민간 협업을 통한 운송 효율성 강화 등 복합운송 효과 입증

- 이번 시범운송 결과 라농항에서 출발한 화물은 미얀마 양곤 3일, 방글라데시 치타공 4일, 인도 첸나이 6일, 스리랑카 콜롬보까지 6일, BIMSTEC 국가(방글라데시, 부탄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스리랑카, 태국)까지 국가별로 상이하나 약 6~10일의 운송시간이 소요됨
- 이는 기존 운송시간인 14일~21일 대비 약 80% 단축된 것으로, 이는 결국 물류비 절감, 유연성 향상을 통해 태국의 경쟁 우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
- 이러한 경제적 이점으로 시범운영 첫 달부터 복합운송 체계 이용 문의와 루트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시장의 초기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
- 뿐만 아니라 SCG JWD Logistics 등 태국 기업과 Ever Flow River Group 등 미얀마 기업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민간 중심의 복합운송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중임
- 민간 협업 강화로 도로-철도-해상 연계 절차가 정교화되면서 복합운송 모델의 안정성과 운송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
● **향후 라농항 기반 복합운송 축이 동남아-인도양 연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발전 기대**

- 최근 홍해 우회 증가와 말라카 혼잡 심화로 대체 루트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라농항 기반 루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
- 이에 이번 라농항 시범운영을 계기로 동남아-인도양을 연결하는 서측 복합운송 축이 현실화·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, 기존 말라카 해협 중심 구조의 대체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음
- 또한 '30년 촌폰-라농 랜드 브릿지 완공 시 태국 내륙을 횡단하는 복합운송 축이 구축되며 동남아 물류 네트워크의 구조적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
- 더하여 라농항을 통한 동·서 연계 운송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싱가포르-말레이시아에 집중된 환적도 일부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됨
- 이번 시범운영은 한국 선사·화주에게도 새로운 항로 및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, 중기적으로 운임·리드타임 변동성 완화도 기대할 수 있음

참고 자료: <https://www.nationthailand.com> (검색일: 2025.12.1.)

美 항만업계, UP-NS 합병에 독과점 우려 표명...육상교통위에 신중 검토 촉구

- 美 항만·물류업계가 UP의 NS 인수합병에 신중 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, 공식 합병신청서 제출 지연으로 최종 승인 시점이 '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높음
 - 美 주요 항만과 물류 관계자들은 유니온 퍼시픽(Union Pacific, UP)이 추진 중인 노퍽 서던(Norfolk Southern, NS) 인수합병에 대해 시장 독과점과 가능성을 이유로 연방 규제기관인 美 육상교통위(Surface Transportation Board, STB)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함
 - 해당 합병은 약 850억 달러 규모로 성공적 성사 시, 美 최초의 화물 전용 대륙횡단철도(Freight-Only Transcontinental Railroad)가 탄생하는 역사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
 - UP은 당초 12월 첫째 주 STB에 공식 합병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, 약 4,000페이지에 달하는 신청서 자료 중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2주 연기하겠다고 밝힘
 - 美 규제 절차 특성상 이러한 신청서 제출 지연은 내년 말까지 최종 승인 결정을 어렵게 해 현실적으로 승인은 '27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음

美 철도사 유니온 퍼시픽(UP)과 노퍽 서던(NS)의 소유 철도 구간



자료: American Business History Center (검색일: 2025.12.03.)

- 항만·물류업계와 철도 경쟁사들은 이번 합병이 시장 독과점, 항만 경쟁력 저하, 온 도크 철도 접근성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STB에 강한 우려와 조건부 대응 표명
 - 합병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, 이해관계자들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美 철도시장 경쟁력 약화, 항만·물류 시장 재편, 온 도크(On-Dock) 철도 접근성 저하를 우려해 압박을 강화함
 - 특히 美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의 90% 이상을 처리하는 해상터미널 운영사를 대표하는

美 연안항만고용자협회(National Association of Waterfront Employers, NAWE)는 STB에 해당 합병은美 항만 경쟁력, 물류 흐름, 지역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표명함

- 한편, 북미 대표 철도사 CPKC(Canadian Pacific Kansas City) 또한 두 대형 철도사의 합병이 철송 시장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사와 UP-NS와 물량 중복이 5% 미만임에도 휴스턴 지역 철도 접근성 보장 등 경쟁 유지 조건을 요구하겠다고 밝힘

● UP-NS 합병은美 철도·항만·복합운송 시장 구조 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엄격한 법적 기준 적용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검토 필요

- 이번 합병안은 단순한 기업 간 거리를 넘어美 공급망 구조, 항만-철도 연계 인프라, 복합 운송 시장 경쟁 체계 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됨
- STB는 철도사 간 대형합병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법적 기준인 'Major Merger Rule'을 적용해 합병이 단순히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경쟁을 '강화'해야 한다는 요건 하에 심사하게 되며 이는 기존 합병 사례보다 훨씬 높은 입증 기준을 요구함
- 한편, NAWE는 철도사가 온-도크 철도 설비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한 이번 합병이 항만 인프라 투자 효과 약화, 국제물류-내륙철도 연계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함
- 또한 물류업계는 해당 합병이 승인될 경우 서부 항만을 중심으로 대륙횡단 '랜드브리지' 운송 모델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이는 지난 10여 년간 동부항만이 투자해 온 아시아 직행 물동량 확보 전략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발표함
- 결국 이번 결정은 단일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넘어 미국 항만 지형, 철도 서비스 경쟁 구도, 국제 공급망 회복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기관과 업계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KAKAO 채널 등록하기



1 카카오톡 검색창에 '국제물류정보포탈'을 검색합니다.



2 제일 오른쪽에 있는 '친구추가 아이콘'을 클릭합니다.